

# “식물은 제뭇이상 탐하지 않아요”

## 산문박의 禪

### 식물학자 양인석 박사



“백채초당(百濟草堂) 해산(海山) 양인석박사(88·경북대 명예교수)의 집에는 위의 4자(字) 편액이 걸려있다. ‘백가지 꽃과 풀이 만발한 집’이란 뜻이다. 양박사의 80생애를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다. 그는 한평생을 꽃과 풀, 나무들을 사랑하며 살아왔다. 얼굴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보여 주는 이력서다. 양인석박사의 얼굴은 평생을 식물과 살아서인가. 미수(米壽)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봄의 들꽃처럼, 가을의 풍성히 쌓인 낙엽처럼 너그럽고 맑으며 자라는 삶이 못지않게 꽃꽂이다.”

“화려한 정미에서야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룸모를 들뜬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야말로 느끼는 사람의 것이요, 험한 바위틈에서도 하늘을 향해 기운찬 몸짓으로 꽃꽂이듯 살아가는 것이 식물인이다. 하찮은 듯 보이는 식물들사이에서도 오묘한 질서가 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기의 삶을 펼치지요.”

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절대 제뭇 이상을 탐하지나 욕심부리지도 않는 평화주의자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 뽑내지만 사실 인간이 한포기 풀보다 잘난 점이 무엇인가요. 모든 생명체는 서로 얽혀져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뜻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경북대 재직시 그는 약 2천여종의 식물표본 3만여점을 만들었다. 식물의 호적을 정리한 것이다. 쓸수도 없는 종찬노숙으로 이어진 채집여행의 결과였다. 야산에서 독사에게 물려 1주일간 병원신세를 진 적도 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손가락에 남아있다.

지난 58년 기존학계에 발표되지 않았던 신종 1개와 신변종 1개를 발견, 66년 동경에서 열린 제11차 태평양과학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패거리를 이루었다. 금오산에서 발견한 털우산나물(Cacalia aconitifolia var villosa Yang)과

### 마음을 몽땅 놓고 싶어요

**문** 스님께서는 늘상 마음을 몽땅 놓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만 몽땅 놓을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순·대전 유성구 덕진동〉

**답** 같은 질문에 여러번 대답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은 누가 끌고 다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각자 마음 내기 이전이 생명의 근본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걸 불성이라고 하겠는데 그 생명의 근본이 있기에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도, 이 살림살이라는 것도 다 이 생명의 근본, 즉 불성이 있어서... 불성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불을 켤 수 있고 모터도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근본 부처, 본래의 자성불이 있기에 마음 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라고 고집하는 것은 다 생명의 근본에 의해 가능한 것, 즉 시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부일 것 같으면 '마음이 뭐냐' 했을 때 저 박사님네들이 가장 잘 알겠어요? 다 한국에서 나고 드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는 것 모르는 것, 실천하는 것 안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참구해 보세요. 건강으로 하지 말고 사무치도록 말입니다.

### 불교가 진리라면 다른 종교들은...

**문** 스님께서는 “불교란 종교라고 하기 이전에 ‘불’ 하면 영원한 생명을 말함 이요, ‘교’란 실이가는 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나 개신교 등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인철·경주시 광명동〉

**답** 종교라게 무엇입니까? 종교란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궁극에 가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자는 것이지요? 가령 어떤 종교가 진리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떤 대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건 비록 가르침이 바르더라도 절름발이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불교’ 하면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수행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지 상 상 담**

**길 들 문 는**

**이 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림 대흥사님께 문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 “식물과 대화 나누면 절로 겸손·평화 배워요”

## 자연휴식년제 도입... “학교마다 자연학습원 세워야”

산과 들을 다니다 보면 괜히 풀을 짓밟거나 나뭇가지나 야생화들을 뚝뚝 분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 생각없이 저지르는 버릇이지만 식물 입장에서 건 생애가 걸린 일이다. 열린 마음으로 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식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들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

양박사가 식물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수원농림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그때 일본인 우에겐선생은 일요일은 물론 방학이든 제자들을 데리고 식물채집에 나서곤 했는데 이때부터 식물에 대한 연구심이 싹튼 것이다. 그가 경북대 문리대 생물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부터 한국식물학의 낙후성이 두드러졌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료라곤 일본인교수가 총독부의 위촉을 받아 함께 한국식물의 계통정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산과 들로 다니며 식물들을 채집했습니다. 식물들의 삶은 알면 알수록 저절로 외경심이 듭니다. 자기가 있는 곳

비슬산에서 발견한 셋뿔부구꽃(Aconitum trilobum Yang)의 학명에는 그의 이름자가 들어갔다. 식물학자로서 이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식물학을 찾아 나서서 생애를 보냈을 때의 설렘은 매번 첫 심을 볼 때처럼 가슴 두근 거린다. 지난 89년 전국 최초로 팔공산에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한 사람도 바로 그다.

“여름휴가때나 가을단풍철 때는 산이 말할 수 없이 몸살을 앓지요. 인간도 부대끼면 병이 생기게 마련인데 산도 식물들도 말을 못할 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유를 찾고 휴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간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이지요. 자연휴식년제는 인간위의 사고를 탈피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꼭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가 시작한 자연휴식년제는 큰 호응을 받아 곧 전국으로 확산됐다.

양박사는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를 수백편 읊었다. 식물에 대한 깊은 사랑

을 <야생식물과 그 식용법> <식물학개론> <백화송(百花頌)> 등 10여권의 책으로도 엮어냈다.

그는 각급 학교에 ‘자연학습원’ 건립을 강조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연과 대화하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자연학습원은 자연사랑, 국토사랑을 기르는 수도장이 될 수 있다. 콘크리트와 메마른 회색담 속에 갇혀 사는 오늘날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은 더 더욱 필요하다. 자연학습원에서 자연과 대화를 나눠본 청소년이면 절대 비평청소년이 될 수 없다.

“요새 청소년들이 뽀뿌루 나간다고 우려들을 많이 하지요. 또 자기중심적이고 예의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법입니다. 공부만큼 강요당하고 폭력찍어 오라물이 대부분인 TV만 보는 아이들, 뽀뿌루 시간없이 학원이다, 과외다 정신없이 바쁜 아이들, 양보와 사랑보다는 경쟁과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식의 독선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잘못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자연

과 대화하며 조그마한 들꽃에서조차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심미안을 띄우는 사람은 결코 정도(正道)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확신한다. 양박사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자연학습원 역할을 산마다 있는 사찰이 해주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박사는 31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 불교 조계종 거사협회 창립회원으로 18년동안 거사협회장을 역임했다. 그에게 식물학으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 구산스님(전 송광사 방장)에게 받은 ‘심시하물(心是勿物)’이라는 화두.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지말라는 뜻이지요. 원인과 해답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달마스님께서 ‘미음 마음이며, 너그러울 때는 온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움푹해지면 비늘 하나 꽃을 지리 없구나’라는 말씀을 늘 되새겨 경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구=이윤호 기자

러니까 근본에다가 몽땅 놓고 가라, 다 그 근본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 생각을 다 떨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가짜의 나가 아닌 근본의 나를 믿어라, 믿어만 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놓을 수 있지 않다면 어떻게 거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놓아라 맡겨라 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맡긴다거나 맡기는 놓과 받는 놓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몽땅 놓는다는 게 그렇게 이치로 따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은 수행의 과정이요 방편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가 부와 자가 상통하듯이 풀이 아닌 도리를 알게되면 저절로 맡길 것도 맡을 것도 없는 걸 체험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맡기는 것 받는 것이 풀이 아니라면서 맡길 건 어디 있으며 맡을 건 또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 사양하는 체를 한다면 이견 도무지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참나를 발견하라는 말이 다 공명됨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몽땅 놓으라는 수행방법에서 이치를 깨고 해서서는 끝내 사랑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학살이나 학위로 되게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첫째입니다. 아는게 많아서 아는 것으로 따지려 하면 그만 아는 것에 딱 막혀서 공부 안 됩니다. 아는게 되려 병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까지도 몽땅 놓고가라고 했는데 부득부득 알음알이로 따지려 합니다. 마음공부는 그런 공부 아닙니다. 그런 공

나오셔서 우리에게 참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다 하는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이신 것입니까?

그래서 참도리를 가르친다면 그 이름이 개신교든 천주교든 티벳불교든 다 가지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제대로 배우라고 말합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전에 부처님을 모셔 놓았는데 모두들 불상에만 매달리고 그냥 기복으로만 내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뭇 불상을 마당에 내려다 놓고 그냥 깨뜨려 버렸습다. 모두들 울고 불고 야단이 났는데 같이 울면서 그걸 부수 버렸습다. 부처님은 내 마음에 모셔놓고 물질만 부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뜻에서 그랬습다.

불자라면 누구나 무의 세계 무심도리와 유의 세계 유심도리를 한데 합쳐서 자유자재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불제자,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의 영장이려면 누구나 그러해야 하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잘 알겠습다.

자유인이라 해서 나쁜 짓을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마음도리를 알아서 대장부답게, 자유인으로서 뚜벅뚜벅 걸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란 그 무슨 종교가 되었든 이 자유인의 길을 가르칠 때 바른 종교라 할 것입니다.

**바른불교 · 식은불교 · 생활불교를 펼치는**

## 정토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4학기 2년 과정인 본 대학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직접적인 수행실수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 실천활동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보다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 간	요 일	시 간	차/기	교 과 과 정
홍제대학	3월 14일-7월 18일	매주 금	주간:야간 4차 3기	<b>제4차 제1기</b> ● 실천적 불교사상 ● 진실한 신앙생활 ● 사원의 구조와 불교의 예절 ● 특강: 불교와 사회(1)
서초대학	3월 13일-7월 17일	매주 목	주간:야간 4차 1기	<b>제4차 제2기</b> ● 인간본다, 그 위대한 삶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 수행의 본질과 힘, 오대수행 ● 특강: 불교와 사회(2)
성남대학	3월 12일-7월 16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1기	<b>제4차 제3기</b> ● 불교교육의 두가지 체계 ● 불교의 세계적 변천사 ● 부처님나라, 인도의 불교사 ● 진리의 바다, 경전의 세계 ● 마음은 찾는 길잡이, 심우도 ● 특강: 불교와 사회(3)
대전대학	3월 14일-7월 18일	매주 금	주간 4차 3기	<b>제4차 제4기</b> ● 불교의 세계적 변천사 ● 불교의 세계적 변천사 ● 마음은 찾는 길잡이, 심우도 ● 특강: 불교와 사회(4)
대구대학	3월 12일-7월 16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3기	
부산대학	3월 13일-7월 17일	매주 목	주간:야간 4차 1기	
경주대학	3월 11일-7월 15일	매주 화	주간:야간 4차 1기	

● 주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 ● 야간: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큰 과정은 중간 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원서교부 및 문의·접수처 .....**

- 서울 홍제 정토불교대학 / 전화: 02-379-1650-2
- 서울 서초 정토불교대학 / 전화: 02-522-2841, 582-1080
- 성남 정토불교대학 / 전화: 0342-721-7062, 722-1760
- 대전 정토불교대학 / 전화: 042-534-9166
- 대구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3-761-5970
- 부산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1-557-2746, 553-9934
- 경주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61-772-1950

**모집 대상 및 입학금 .....**

- 대상: 누구나 다(만 19세 이상)
- 참가비: 6만원
- 접수문의: 각 지역 대학 사무국

**정.토.불.교.대.학**

맑은 마음 / 좋은 벗 / 깨끗한 땅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60 인왕빌딩 2층  
전화: 02-379-1650-2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땀샘이 건조하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 있다. ( )
- 18. 당뇨와감상선으로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